『문제아』 독후 활동지

존 조 글 | 오승민 그림 | 김선희 옮김
도토리숲 | 13,000원 | 청소년

> **한국계 배우 존 조가 LA폭동을 배경으로**
> **직접 겪은 가족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자전적 동화**

책을 읽기 전에

활동1 표지 살펴보기

1. 표지의 배경에 나타난 여러 상점들에는 영어와 한글이 혼재된 간판이 보입니다.
배경 속의 장소는 어디일지 추측해 봅시다.

---

2. 표지 속의 인물은 어딘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인지 화가 나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인물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

3. 이 책을 쓴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 '존 조'입니다. 작가를 설명하는 단어 중 하나인
'한국계'는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를 또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

3. 책의 제목은 '문제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문제아'라고 불렀던 적이 있나요? 또는
스스로를 '문제아'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그때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활동2 우리도 '저들'일 수 있을까

조던은 뉴스에서 흑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백인들을 보면서,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 문득 라타샤를 향해 총을 당긴 순자—두가 떠올랐다.
> 한국 사람이 '저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저들'일 수 있을까?

우리들은 누구나 '인종 차별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뉴스 (A), (B)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지난 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바이러스' 라는 호칭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차별적인 용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혐오가 확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 76만이 서명했고, 중국인을 비하하는 의미의 '짱깨'라는 혐오 표현의 사용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폐렴','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은 혐오 표현일까요? 아니라면/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위 사례와 같이, 내가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차별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러한 경험에 대해 써 봅시다. (예: 학교 폭력, 인종 차별, 성차별)

- 조던이 겪은 'LA 폭동', 전 세계인이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공동체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서로를 배척하고 공격하는 대신 어떤 자세로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책에서 발췌한 아래 지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써 봅시다.

> 할아버지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이해했다.
> 그리고 이제 나는 생각한다, 맞다,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 나는 또한 마이크의 발목에 붕대를 감아 준 게리 씨, 우리를
> 차에 태워 준 루이스 아저씨, 우리에게 컵라면을 끓여 주고
> 노래방에서 기다리게 해 준 브라이언을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가
> 우리의 것을 보호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한 서로를
> 보호해야 한다. 어쩌면 그게 진짜 보호다.

활동3 나는 어떤 사람일까

조던은 사라와 화해의 대화를 나누던 중 무언가를 깨닫고는
"나는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래 질문에 답하며 생각해 봅시다.

- 조던은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아', '반항아'로 불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남이 나를 부르는 말' 이 있나요?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 남이 정의하는 내가 아닌, 내가 정의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 착한 아이는 언제나 착한 아이이기만 할까요?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를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다양한 색깔이 있을까요? 책에서 발췌한 아래 지문을 읽고 밑줄 친 문장 '누구도 단순히 어느 한쪽에 있지 않다.'의 의미에 대해 써 봅시다.

실은, 어쩌면 전부 다 하나의 커다란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착한 아이, 나쁜 아이. 누구도 단순히 어느 한쪽에 있지 않다. 사라도 아니다.
학교에서 잘 해내면서 부모님 몰래 비밀이 있었다. 마이크도 아니다. 교회 벽에
낙서를 하고 저녁 내내 나한테 붙잡혀 있었다. 마이크가 발목을 삐었는데도
나는 계속 마이크를 데리고 뛰었다.

활동4 함께 토론하기

조던은 아빠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아빠에게 총을 가져다주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조던에게서 총을 받아든 아빠는 뜻밖의 말을 꺼내죠.
아래 두 지문을 읽고 '자기방어 용도의 총기 사용'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 봅시다.

(A) 하지만 문득 자기 트럭에서 끌려 나와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채 피투성이가 되도록 흠씬 두들겨 맞은 그 남자가 떠올랐다.
그 사람한테 총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달라졌을까? 뉴스에 나온, 몽땅 다 털린 가게는 어땠을까? 누구도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안에 총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뭐라도 달라졌을까? 총을 본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지 않을까? 아빠는 실제로 총을 쓸 필요도, 방아쇠를 당기게 될 일도 없을 거다.

(B) "나는 남자를 지나쳐 벽을 쏘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왼쪽으로 겨냥했다면 그 남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 그렇게나 쉬웠을 거야.
다른 누군가의 목숨이, 그렇게 쉽게 네 손에 달려 있다니, 그건 절대로 안 돼. 방아쇠를 당길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난 그 사람을 겁주려고 했어. 왜냐하면 그 순간, 화가 났으니까. 하지만 상상해 보렴. 그 찰나의 순간, 내가 정말로 그 남자를 쏘기로 마음먹었다면?"

논제	자기방어 용도의 총기 사용은 타당한가?
주장	논제에 대해 (찬성, 반대) 함
근거1	

근거2	
상대 토론자의 의견 정리	
결론:	

활동5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란, 고전 그리스어로 파종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혹은 이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며 디아스포라에 대해 알아봅시다.

- 소설 속 주인공 조던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조던의 가족은 미국에 살지만 자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 속의 인물들에게서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었던 부분을 찾아 써 봅시다.

> (예시) 아빠가 요전날 밤 나에게 말했다.
>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미국에 사는 그냥 한국사람 같았어.
> 하지만 지금, 함께 다시 세우고 있으니까, 내가 한국계 미국인 같은 느낌이 들어."

- 최근, 디아스포라를 다룬 대중문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2년에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애플 TV+ 오리지널 드라마 '파친코(Pachinko)'가 세계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접한 디아스포라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책 등을 떠올려보고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내용을 소개해 봅시다.

활동6 그날의 일기

1992년 4월 29일, 하루 동안 조던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조던은 그날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조던의 일기를 써 봅시다.

1992년 4월 29일,